

부산의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인문교육 현황 분석*

— 재(在)釜山 國立釜慶大學校 유학생 사례를 중심으로

이보고** · 김현태*** · 한희진**** · 오금식*****

【목 차】

1. 서론 : 중국 유학생과 한국 대학
2. 본론 : 한국 내 유학시장 현황
 - 1) 중국 사회의 유학열(留學熱)과 한국 유학시장의 현황
 - 2) 부산의 중국 유학생 현황 :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비교를 중심으로
 - 3) 부산 지역 대학들의 유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사례 분석 :
: 부경대학교 중국 유학생 수강 과목 현황을 중심으로
3. 결론 : 부산의 중국 유학생에 대한 인문 교육 필요성

【초록】

한국 사회의 유학생 관리 상황이 양적 팽창에 비해 그 질적 수준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한국의 제2도시인 부산이라는 공간 속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어떤 선택과 삶의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초보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의 국립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체감하고 있는 한국 대학 교육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인문학 소양 교육에 대한 실태들을 살펴보고자 했다. 논문에서 외국인 유학생 교육, 특히 중국인 유학생 교육에 있어서 보편적인 인문 교육의 확대를 강조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지각된 차별감을 극복하는 사회적 지지 획득의 첫 단계라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대학은 정책적 배려를 통해 이들 중국인 유학생들의 학습자 태도를 회복함과 동시에 유학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 스트레스와 우울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유학생, 인문 교육, 교육 체계, 사회적 지지, 구별짓기, 우울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부경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Research Fund, 2019)

** 이보고 (주저자) : 부경대학교 글로벌자율전공학부 조교수 (bogopanda@pknu.ac.kr)

*** 김현태 (공동저자) : 부경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dochtkim@pknu.ac.kr)

**** 한희진 (공동저자) : 부경대학교 글로벌자율전공학부 조교수 (polhan@pknu.ac.kr)

***** 오금식 (공동저자) : 부경대학교 글로벌자율전공학부 조교수 (ksoh@pknu.ac.kr)

1. 서론 : 중국 유학생과 한국 대학

1979년 개혁개방 이래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이제 산업 고도화와 소비주도 성장의 시대에 진입한 중국 사회는 전지구화의 진행과 함께 자국 인재들을 세계 각처로 내보내 해당 지역의 유학 시장을 급팽창하게 만들고 있다.¹⁾ 현재 중국 유학생들의 최상위층은 하버드대학이나 예일대학과 같은 미국의 명문대로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미국 국제교육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7~18년 미국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은 무려 36만 3000명에 이른다. 또 이와 비교해 교육 수준은 상당하면서도 학비가 저렴한 일본의 경우도 도쿄대학 약 2400명, 와세다대학 3400명, 게이오대학 950명, 교토대학 1400명 등이 재학하면서 전체 약 11만 5000명 정도가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 과거 많은 중국 유학생들은 자국의 까오카오(高考)를 회피하기 위해 유학을 선택했기 때문에 기초 학력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 수였으나, 최근에는 교육열과 경쟁 분위기로 인해 상당히 우수한 자질을 갖는 학생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²⁾

반면 한국의 대학들은 이전 일본 대학들이 겪었던 것과 같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절대 인구 및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이에 따른 입학 자원의 급감이라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 경영의 관점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 대학들의 생존에 필수적 요소가 되어 있다. 이미 실질적으로 한국 대학의 수용 가능 인원에 비해 입학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 시작되었으며, 정부에 의한 기계적인 인원 조정을 넘어 시장에서 대학의 퇴출이 시작되는 상황이다.³⁾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한국 대학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 상황은 연구역량의 감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대학은 국가 경쟁력에 비해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하락해 왔고, 그에 따른 교육 경쟁력 또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나타내는 WEF 국가경쟁력 평가 가운데 「고등교육 및 훈련」 항목에서 한국은 25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 하위 항목 가운데 「대학시스템의 질」에서는 81위를 나타내고 있다.⁴⁾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이 사회적 아젠다로 등장하면서 대학 또한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인데, 실질적으로 학문간 융복합의 성공 사례가 극도로 드문 실정이다. 한국 사회가 4차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는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는 견실하게 확보되어 있는 반면, 4차 산업과 글로벌화된 융복합 인재 교육에 대한 대비는 미흡한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는 대학의 교육비를 동결함으로써 대학 자체의 연구 투자 비중이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상황을 초래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타계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202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2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⁵⁾

1) 유병부·우양일, 「중국인 유학예비군들의 유학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한·일·미·영 4국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2권 제1호(통권 30호), 2014.01. p.178.

2) <https://gendai.ismedia.jp/articles/-/66298?page=4> 기사 참조.

3) <https://news.joins.com/article/23612085> 기사 참조.

4)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50219/> 기사 참조.

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07006028&wlog_tag3=daum 기사참조.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국제경쟁력 수준〉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그 가운데 한국 대학들의 유학생 교육상황은 현재까지 절대적으로 중국 정부의 유학 정책과 연동되어 있었다.⁶⁾ 특히 21세기 이후 중국 정부의 시장화, 규범화 그리고 성숙화 된 유학 정책은 많은 중국 유학생들로 하여금 해외로 나아가 유학의 기회를 잡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중국으로 돌아와 창업과 취업을 함에 있어서도⁷⁾ 양호한 조건과 환경을 만들게 하여 유학시장 자체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끔 하였다.⁸⁾ 따라서 한국의 유학생 시장 또한 중국 학생들에게 많은 선택을 받게 되었고,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유학 생활을 함으로써 인적, 문화적 교류의 증가가 이루어져 상호에 대한 이해 또한 일정부분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양국 간 정치적 이해 충돌과 대립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완충지대를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양국 관계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실과 미래의 교육 요구 수준 아래에 한국의 대학들이 어떤 교육 이념과 실천을 통해 양질의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한국 대학 교육이 자국 중심 교육⁹⁾을 넘어 보편적 세계 교육의 주체적 행위자로서 어떻게 보완되어야 할 것인가를 부산 지역 유학생 교육의 사례, 특히 인문 교육과 관련된 사례와 통계들을 통해 초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논의를 시

6) 유병부·우양일, 앞의 글, 180쪽.

7) “中国政府正是通过多种渠道和形式来有效地改善留学人员回国就业和创业所需的‘软件’和‘硬件’条件，切实有效的提高了留学人员归国的创新创业的积极性。” “为了便于对留学人员等高端人才的管理和使用，教育部和中国科学院等单位共同组建的‘在外留学尖子人才库’，十分有效的起到了国内用人单位与旅居海外的特定的留学人员个人之间的直接联系和沟通作用。而各级政府和用人单位继续坚持‘走出去’和‘引进来’相结合的路线，以吸引大量的留学或旅居海外的优秀中国学者回国创业或就业。” 胡翠月，「关于中国留学政策对赴韩中国留学生规模变化影响的研究」，《韩中社会科学研究》，제10권 제1호(통권 22호)，2012.01. pp.330-331.

8) 胡翠月，앞의 글，p.323.

9) 본 논문에서의 보편적인 인문 교육에 대해 강조는 반대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차별감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한국에서 유학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감은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자, 개인적 차원으로 보면 우울이라는 심리적 부적응 상태와 직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사실 유학생 개인들의 사적 차원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제도 곳곳에 은폐되어 있고, 따라서 제도 속에 녹아 있는 차별감의 원인에 대한 자각이 우리들에게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은폐되어 있는 제도적 차별에 대한 검증과 해체는 보편적 인문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기본적인 관점이다. 진민진·배성만·현명호，「중국인 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감，대처양식，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16(4)，한국심리학회，2011.12，p.793 참조.

작하기 위해 먼저 중국 유학생 정책과 관련한 탐색으로 시작해 현 단계에서 개선되어야 할 한국 대학 교육 내의 유학생 교육 현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같은 논문의 문제의식과 관련해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胡翠月的 경우 「关于中国留学政策对赴韩中国留学生规模变化影响的研究」이라는 논문에서 중국의 유학 정책과 귀국 시의 창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 그리고 이 같은 중국의 유학정책이 한국에 와서 유학을 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 분석을 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의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분석을 공공과건과 자비유학의 기준¹⁰⁾을 통해 진행하면서, 유학 전과 후에는 중국 정부 정책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음을 강조한다. 중국 정부의 정책은 유학 전에는 유학에 대한 제한들을 대부분 폐지함으로써 자유로운 선택을 유도함과 동시에 유학 후 취업 단계에 있어서 “귀국하는 분위기를 장려하여 국가를 위해 복무”하도록 하는 방향 기제로서 작동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중국 정부의 유학과 귀국 후 창업지원 정책과의 연관성¹¹⁾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이 모델을 중국의 전형적 인재 개발 모델이라고 파악한다.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 내에서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한다.¹²⁾ 결국 유학 전과 후에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유인책으로 중국 유학생들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하지만 정착 유학 진행 중의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한국의 대학 교육 제도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판의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병부, 우양일의 경우, 「중국인 유학예비군들의 유학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한국으로 유학하기로 결정한 중국인 유학예비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실제 유학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하여 한국 유학시장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과 유학 정책입안에 필요한 제안을 하고 있다.¹³⁾ 그 외에도 「중국 유학생의 한국 유입급증에 따른 대안 모색」이나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들의 최근 현황과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등의 논문들이 중국 유학생들의 증가 추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들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부산의 국립대학에서 유학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체감하고 있는 한국 대학 교육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인문학적 소양 교육에 대한 실태들을 초보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말하자면, 앞선 胡翠月的 연구에서 중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유학 전과 후 중국 유학생들에 대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생애 설계의 실질적인 구성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면, 본 연구에서는 실제 이들이 한국에서 받는 교육의 내용, 특히 인문학적 소양과 관련된 보편적인 인문 교육의 수월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방향과 방법론을 추출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자 한다.

10) 胡翠月, 앞의 글, p.324.

11) “出台鼓励留学生回国创业政策与严峻的国内外形势和庞大的留学生群体的出现有着紧密关系。从20世纪80年代中后期开始, 零星的有一些出国较早的留学人员开始回国筹办创立公司。所以中国政府开始关注留学人员回国进行创新创业的这一新生事物。本文认为可以将从改革开放的中前期看作第一阶段。即1978年到1991年期间看作中国政府支持留学人员回国创业政策的酝酿及准备期。从而1992年到2001年为第二阶段。也就是作留学人员回国创业政策的逐渐向成熟期发展的过渡期。最后就是从2002年至今为第三阶段。就是中国政府对留学人员回国创新创业从战略上进行合理规划并加以完善的成熟期。” 胡翠月, 앞의 글, pp.329-330.

12) 胡翠月, 앞의 글, p.348.

13) 유병부·우양일, 앞의 글, p.179.

2. 본론 : 한국 내 유학시장 현황

1) 중국 사회의 유학열(留學熱)과 한국 유학시장의 현황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이라는 유학지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이들에게 한국 유학은 어떤 문화자본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들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그에 대한 답도 달라진다. 황경아, 홍지아의 경우 「제한 중국 유학생의 유학동기와 문화자본으로서의 취득학위의 가치 연구」에서 중국 학생들은 왜 한국으로 유학을 오며, 한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위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간 중국사회에서 문화자본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유학생들이 스스로의 유학동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또 중국의 상위대학, 혹은 영미권 중심의 서구 대학의 학위에 비교해 열등한 위치에 있는 한국 대학의 학위 취득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며 그 한계를 어떻게 타협하는지, 이후의 삶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한국 유학으로 획득할 문화자본에 어떠한 역할을 기대하는지”¹⁴⁾ 등의 문제에 대해 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앞의 연구에서는 문화자본이 계급에 따른 특정한 생활방식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 체화된 취향·언어·태도 등의 아비투스, 책이나 그림 등의 물질, 제도화된 형태인 학위 등 3가지 유형으로 세분된다고 한 부르디외의 개념을 중심으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모에게 전수받아 사회화되는 취향이나 태도 등의 아비투스와 비교해 학력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개인의 노력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타고난 계급의 재생산이 아닌 계급 상승을 이룰 수 있는 비교적 역동적인 문화자본임”¹⁵⁾을 강조하는 견해, 즉 문화자본이 계급재생산이 아닌 계급이동의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연구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말하자면, 아비투스와 물질적 환경은 타고난 부모의 문화자본이 자식대로 전이되는 측면이 강하지만, 교육을 통해 획득하는 학위 등의 문화자본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이며 개인의 노력에 의해 취득이 가능한 자본일 수 있으며, 이에 유학이 가장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나 중국 사회에서 세계 대학 순위가 한국이나 중국의 대학보다 높은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고 또 그 과정에서 획득하는 영어 구사 능력은 바로 세계적인 엘리트 대열에 진입하는 경로이며, 동시에 본국의 엘리트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중국 학생의 한국 유학이 만들어 내는 유리한 지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본 논문은 그 같은 문제의식을 좀 더 국가 단위에서 지역 단위로 내려와 이들의 지역 선택이 어떤 원인에 의해 작동되고 또 그들이 느끼고 있는 실제 교육 과정에서의 만족과 불만족 요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특히 교육 과정에서 보편적 가치를 교육하는 인문 교육 관련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 한국 대학이 보완해야 하는 인문 교육 방

14) 황경아·홍지아, 「제한 중국 유학생의 유학동기와 문화자본으로서의 취득학위의 가치 연구」, 『한국 언론정보학회』, 제91집, 한국언론정보학회, 2018.10. pp.320-321.

15) 황경아·홍지아, 앞의 글, p.322.

향과 나아가 글로벌 교육의 기준과 지역적 특징을 어떻게 결합하여 이들을 교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것이다.

챔프먼(1981)은 학생들이 대학 선택 과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는데, 주로 학생의 특성과 외부 영향으로 나누어 구분한다. 학생 특성으로는 “사회경제적 지위, 적성, 고등학교 성적,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망 등으로 설명하는데, 그러나 학생의 특성이라는 것은 해당 지역이 자국 내에서 대학을 선택할 때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외국 유학을 결심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기타 변수들이 더욱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¹⁶⁾고 분석한다. 그 외부영향에 대해서 크게는 “영향력이 있는 타인추천, 대학의 긍정적 특성, 그리고 대학이 학생과 의사소통하려는 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¹⁷⁾

박은경(2011)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배경은 개인적으로 자아실현을 통해 학력 상승의 목표를 달성하고, 이에 따라 양호한 직업군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유학 선택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오수연(2001)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선택요인을 분석해 보니, 위치, 재학생수, 등록금, 교과과정, 시설 및 설비, 입학절차, 대학홍보, 입학 후 서비스 등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띠는다고 분석했다. 유병부와 우양일(2013)의 경우, 특히 중국 유학생의 경우 유학 상품 속성으로서 국가이미지, 역사문화, 교육수준, 비용, 주변인의 권유의 기준으로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¹⁸⁾ 이들의 논의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 예비군들은 “유학 대상국을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주변인 즉, 중개기관과 선생님 및 지인들의 추천이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⁹⁾ 또 한국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한국에서 대학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과 애교심을 고취”²⁰⁾시키도록 하고 우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 호의적인 구전행동과 지지를 표명케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학생 유치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유학생의 증가와 유학 풍조의 확장은 사실 근본적으로 중국 사회의 변화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중국 사회는 현재 ‘사회계층구조의 재편’과 ‘고등교육의 대중화’라는 상황에 직면해서 다양한 형태의 유학 관련 욕망들이 분출되고 있는 국면이다.²¹⁾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고등교육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세계화 경향 속에서 중국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제 더 이상 중국 내에서 고등교육을 마치는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고, 중국 정부 또한 외국에서 유학한 학생들이 중국에 돌아오는 것에 대한 우대 정책을 펼침으로써 ‘유학’의 궁극적 효용성을 실감하는 많은 부모들로 하여금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부모의 입장이나 학생의 입장에서 중국 내의 심각한 입시 경쟁을 우회하면서도 글로벌한 소양 및 문화자본의 획득을 위해 유학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16년 해외로 출국한 중국 유학생은 54만 4천여 명이고, 그 가운데 자비유학이 49만 8천여 명으로 전체 90% 이상을 차지

16) 유병부·우양일, 앞의 글, p.182.

17) 유병부·우양일, 앞의 글, p.183.

18) 유병부·우양일, 앞의 글, p.178.

19) 유병부·우양일, 앞의 글, p.194.

20) 유병부·우양일, 앞의 글, p.194.

21) 황경아·홍지아, 앞의 글, pp.324-325.

하고 있다.²²⁾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그리고 부산이라는 지역은 글로벌 대학의 위계 속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중국 유학생들은 높은 학업 성취도를 획득하기 위해 한국을 선택했다기보다는 문화자본²³⁾으로서 한국어 구사 능력이나 한국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이 한국의 학위 과정 자체보다 자신의 인생 설계에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석사나 학부 과정에서 이들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의 학위를 통해 다른 나라 출신의 유학생과 비교해 취업 시장에서 우위를 취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자신들의 선택이 미래에 한국 대학이라는 매개를 통해 더 높은 소득의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적 의미 부여의 경향이 크다. 또 부산 선택의 이유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들은 부산이 가지고 있는 고향과의 거리, 유사한 생활환경, 온난한 기후, 캠퍼스가 가지고 있는 위치적 장점들을 주로 언급한다.²⁴⁾

이와 같은 한국으로의 유학이 학습과 학벌에 대한 적극적인 목표 추구의 결과라기보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 비해 대체제적인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이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과 학습의 수월성을 확보하는 것은 한국 대학들에게 있어 더 큰 책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중국 유학생의 층차가 두텁고 다양한 관계로 학습자의 수준과 상황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더욱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는 것이 한국 대학의 현실이기도 하다.

사실 태생적으로 한국에서 유학하는 중국 학생들의 목표가 이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학생 증가에 따른 현실적인 여타 문제들도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주요 대학 유학생 규모는 대규모 사립대의 경우 학교당 4000명을 넘어서는 곳이 3군데 있고, 그 아래로 주요 사립대의 경우 2000~3000명 정도의 유학생 정원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등록금 수입이 동결된 한국의 사립대의 경우, 유학생이 내는 등록금이 대학 재정 위기의 탈출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출신 국가별 인원을 살펴보면, 2019년 현재 중국 약 7만 1000여 명, 베트남 3만 7000여 명, 몽골 7400여 명, 일본 4400여 명, 미국 2900여 명의 순으로 국가별 유학생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유학생의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그만큼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인바운드 글로벌라이제이션 교육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확보가 힘든 상황 속에서 한국 대학들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통해 그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그 관리가 대단히 어려우며 따라서 불법 체류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

22) 황경아·홍지아, 앞의 글, pp.325-326.

23) “문화자본은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체화된(embodied) 상태의 문화자본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정신과 신체의 성향 형태로 존재한다. 객관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은 그림, 책, 사진, 악기, 기계 등과 같은 문화상품의 형태로 존재하며, 이는 이론이나 이론에 대한 비판 그리고 문제제기 등이 실현된 모습이거나 혹은 그것이 변화된 발자취이다. 제도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은 교육적 자질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객관적인 형태 자체가 문화자본에 고유한 속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따로 분리시켜서 보아야 한다.” 위의 내용을 참고했을 때,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는 그들이 중국 사회로 돌아갔을 때 일종의 체화된 혹은 객관화된 문화자본으로 작동되기 바라는 기제인 것이다. 유석춘·장미혜 등 공역, 『사회자본 - 이론과 쟁점』, 도서출판 그린, 서울, 2007, p.65.

24) 황경아·홍지아, 앞의 글, p.346.

는 실정이다. 한국 법무부 추산 약 16만 여 명의 유학생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약 1만 400 0여 명이 불법 체류 중에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해마다 약 두 배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실제 국가별로 보면, 베트남 9213명(66.1%), 중국 1930명, 몽골 1066명, 우즈베키스탄 952명의 유학생들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상황이다.

2) 부산의 중국 유학생 현황 :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비교를 중심으로

수치적으로 한국 사회의 유학생 관리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제2도시인 부산이라는 공간 속에서 중국 유학생들은 어떤 선택과 삶의 계획을 실천해 가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초보적인 통계를 간단히 살펴보겠다. 먼저, 2019년 9월 현재 부산지역 대학별 국적별 유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붙임 2. 부산지역대학 외국인 유학생 현황(2019.9.2 기준)

2019 부산지역 대학별 국적별 유학생 현황(2019.9.2. 현재)															
(단위 : 명)															
연번	대학	국적	총계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일본	몽골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	러시아	미국	기타
	합계		12,504	5,490	3,279	765	334	390	248	231	170	105	92	48	1,219
1	경남정보대학교		11	-	1	1	-	6	-	-	-	-	-	1	2
2	동부산대학교														
3	동주대학교														
4	동원과학기술대학교														
5	동외과학대학교														
6	부산경상대학교														
7	부산과학기술대학교		603	129	461	2	-	-	3	-	-	-	5	-	3
8	부산여자대학교														
9	부산교육대학교														
10	경성대학교		1,598	292	520	130	89	9	25	218	130	29	9	7	140
11	고신대학교		133												
12	동명대학교		660	229	315	35	-	4	50	1	-	-	2	-	24
13	동서대학교		1,201	692	122	115	51	62	14	4	2	3	10	4	122
14	동아대학교		1,062	392	420	99	39	13	6	4	9	7	3	2	68
15	동의대학교		658	287	302	6	8	19	12	-	1	1	1	-	21
16	부경대학교		1,749	934	238	38	46	99	59	2	13	16	16	8	280
17	부산가톨릭대학교		83	15	26	-	-	7	1	-	-	-	1	1	32
18	부산대학교		1,410	795	58	71	37	28	58	2	13	43	16	15	274
19	부산외국어대학교		1,213	728	245	14	1	113	2	-	-	2	24	3	81
20	부산장신대학교														
21	신라대학교		971	651	234	17	2	8	10	-	1	2	1	5	40
22	영산대학교		691	211	217	162	60	3	2	-	-	2	3	1	30
23	인제대학교		286	74	91	69	-	16	5	-	-	-	-	-	31
24	한국해양대학교		175	61	29	6	1	3	1	-	1	-	1	1	71
25	부산디지털대학교														

2019년 9월 현재 부산에서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적은 중국인 학생으로 총 유학생 12504명 가운데 5490명에 달해 약 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일본의 순서로 유학생 비율을 점하고 있다. 이 상황 가운데 특이한 부분은 베트남 유학생들이 최근 1년 사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재학하고 있는 학교 당 유학생 인원들의 순위를 살펴보면, 부경대학교, 경성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동서대학교의 순으로 재학하고 있으며, 이들 5개교가 유학생 1000명 이상인 대학이다. 이 통계를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분리해서 산출해 보면,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등 3개 국립대학에서 재학하는 학생의 수는 3334명으로 전체 25개 대학 가운데 재학생 비율로 26.6%를 차지하고 있어,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전체 유학생 비율이 약 1:3의 비중으로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립대학의 절대 수에 비해 소수인 국립대학에서 재학하고 있는 유학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이 재학 중인 대학교의 유형별 비중 차이가 나타내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분석해 보면, 외국 유학생들의 대학 선정에 있어서 부산의 경우 국립대학이 타 지역에 비해 많아 이들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학력에 있어서 최상위권이 아닌 유학생들은 학비와 교육 여건의 측면에서 사립대학에 비해 우수한 조건을 제공하는 국립대학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들에게 학교 선택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국립대학이 주는 가장 큰 효용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대학 자체의 신뢰성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국립대학의 교육과정과 생활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여건에 대해 상당히 만족을 표하는 것 또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여기서 논의의 범위를 중국인 유학생으로 다시 한 번 좁히면, 부산에서 재학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은 총 5490명이고, 그 가운데 국립대 재학 유학생은 각각 부경대 934명, 부산대 795명, 한국해양대 61명으로 총 1790인데, 이는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의 총 3.26%에 해당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즉 부산 중국인 유학생 3명 가운데 1명 정도가 부산의 국립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의 경우 중국에서 상위권 대학 진학 기회를 회피하거나 혹은 포기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그런 상황에 따라 이들은 중국 내 취업 시장에서 자국 학벌로 가질 수 있는 위상보다 한국에서의 유학이 취업이나 결혼의 과정에서 더 많은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대학을 선택할 때 그 대학의 중국 내 인지도나 신뢰도가 높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은 이들에게 점차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의 유학 경험이 중국인 학생들에게 점차 축적되어 이들로 하여금 실리적인 선택을 취하도록 자연스럽게 선택의 방향이 설정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좀 더 실증적인 사례 연구를 위해, 부산에 소재하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교육 과정을 비교하여, 그 안에 내재하는 각 대학의 유학생 교육 전략을 비교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방향의 유학생 교육 과정이 적합한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심화시켜 보겠다. 우선 그 사례로서 현재 부산 시내 가장 많은 934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국립 부경대학교와 한·중·일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692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동서대학교를 비교하여 그 특징을 추출해 보겠다.

[부경대학교 글로벌자율전공학부 글로벌비즈니스트랙]

글로벌비즈니스트랙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구분	과목명	학 점 전 후		과목명	학 점 전 후		과목명	학 점 전 후		과목명	학 점 전 후		
전공 필수				기업회계원리	3-3-0		경영정보론	3-3-0					
				마케팅관리	3-3-0		국제상무론	3-3-0					
				국제경영론	3-3-0		글로벌정치경제	3-3-0					
				글로벌사유와고전 탐구	3-3-0		중국문화산업의 이해	3-3-0					
				국제관계의이해	3-3-0								
소계					15			12					27
전공 선택				비즈니스커뮤니케 이션	3-3-0		전자상거래	3-3-0		기업윤리	3-3-0		
				미시경제학	3-3-0		국제금융론	3-3-0		무역계약론	3-3-0		
				국제물류론	3-3-0		국제경영전략	3-3-0		국제협상론		3-3-0	
				동아시아지역연구	3-3-0		화물운송론		3-3-0	국제학의이해		3-3-0	
				중국환경의이해	3-3-0		국제통상론		3-3-0	중국학세미나		3-3-0	
				거시경제학		3-3-0	국제마케팅		3-3-0	국제재무론		3-3-0	
				조직행동론		3-3-0	동북아네트워크 와 비즈니스		3-3-0	미국과세계정치		3-3-0	
				글로벌거버넌스와 리더십		3-3-0	미국경제이론과 정책		3-3-0	생산운영관리		3-3-0	
				인적자원관리		3-3-0	유럽경제이론과 정책		3-3-0				
							중국경제론		3-3-0				
							재무관리		3-3-0				
소계					27			33			24		84
합계					42			45			24		111

※ 글로벌비즈니스트랙 프로그램을 이수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90학점(자유선택 15학점 이내 포함) 이상 이수하여야하고 이 때 “국제관계의이해” 교과목은 교양과정으로 개설된 교과목이라 하더라도 전공필수 과목으로 인정한다.

위의 교육 과정은 국립 부경대학교 글로벌자율전공학부의 비즈니스 트랙에서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이다. 부경대학교의 경우, 국제교류부에서 1차 어학교육과 한국학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그것을 1학년에 마친 후 일정 수준의 어학 실력이 갖춰지면 다시 정식 학부로 진급하여 재학하게 된다. 이들 유학생들은 어학 수준에 따라 일반전공 선택을 하거나 혹은 글로벌자율전공학부의 비즈니스 트랙에서 학부 과정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국제교류부와 글로벌자율전공학부의 비즈니스 트랙 사이에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국제교류부는 주로 한국학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기초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소개 강의를 제공한다. 이어서 비즈니스 트랙으로 진급한 유학생들, 그 가운데 특히 중국 유학생들이 주로 재학하는 비즈니스 트랙은 대다수 실용적인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특징은 실무적인 비즈니스 교육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인문 소양 자체를 함양할 수 있는 과목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해당 대학이 중국 유학생들의 전공 소비 요구에 맞게 교육과정을 설계한 결과로 보인다.

[동서대학교 동아시아 학과]

3단계의 3국 대학 공동교육과정			
단계	과정	학년	내용
1단계	파견 전 교육	1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 : 초급일본어, 초급중국어 전문지식 : 일본연구개론(문화·역사·사회), 중국연구개론(문화·역사·사회) 커뮤니케이션 : 이문화(異文化)커뮤니케이션 연습, 동아시아 비교문화 연습
2단계	이동캠퍼스	2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 : 70%, 인문학 : 30%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 광둥외어외무대 중급중국어+중국 연구 (봄학기 or 가을학기) </div> <div style="margin: 0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리쓰메이칸대 캠퍼스 중급일본어+일본 연구 (봄학기 or 가을학기) </div> </div>
		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 : 40%, 인문학 : 60%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 광둥외어외무대 고급중국어+중국지역연구 (봄학기 or 가을학기) </div> <div style="margin: 0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리쓰메이칸대 캠퍼스 고급일본어+일본지역연구 (봄학기 or 가을학기) </div> </div>
3단계	졸업 준비 과정	4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교육 커리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연구·중국연구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일본·중국) 졸업 논문 작성 리더스 포럼

반면, 동서대학교의 경우 유학생들을 학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교내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 가운데 동아시아 학과의 경우 한·중·일 3국의 공동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전공에서는 중국 대학과의 2+2 과정을 진행하는 점이 눈에 띈다. 공동 캠퍼스의 경우, 공간적으로 유학생들에게 한 캠퍼스만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3국의 다양한 캠퍼스 경험을 제도화함으로써 글로벌 경험 축적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의 특징으로는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량적 어학 요구 수준을 주문하면서, 상호 문화에 대한 개론 과목을 바탕으로 사회와 역사, 그리고 콘텐츠 연구와 같은 세부전공으로 발전되는 교육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 교육과정에서는 어학 실력을 바탕으로 모든 사회의 공통 주제인 인문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 부산 지역 대학들의 유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사례 분석 : 부경대학교 중국 유학생 수강 과목 현황을 중심으로

앞서 설명되었던 바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대학을 선택할 때 대학 선택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위치, 재학생수, 등록금, 교과과정, 시설 및 설비, 입학 절차, 대학 홍보, 입학 후 서비스 등이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다.²⁵⁾ 특히나 중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이라는 유학 상품의 속성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국가 이미지, 역사문화, 교육수준, 비용, 주변인의 권유 등이 되는데, 정작 유학을 진행하는 과정에

서는 교육의 질과 실제 생활환경이 가장 그 영향이 크다. 그리고 만약 이들이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주변 한국 유학과 관련해 가장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게 될 잠재적 평가자들인 셈이다. 따라서 현재 그들이 밟고 있는 교육 과정에 대한 점검과 쇄신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본 장에서는 이들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교육 과정의 특징이 어떻게 요약될 수 있는지 초보적 통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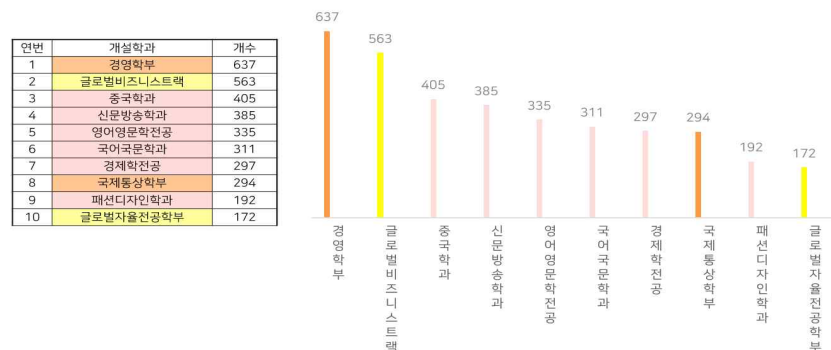
우선, 부산의 부경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수는 2019년 10월 1일 기준 934명으로 부산 시내 여타 대학에 비해 많은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934명의 중국 유학생은 과정에 따라 학사 과정 540명, 석사 과정 98명, 박사과정 84명, 어학연수 65명, 교환학생 145명, 기타 과정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학사 과정생들의 개설 강좌에 따른 중국 유학생 분포를 보면, 인문사회과학대학에서 가장 많은 2683시간의 수강자가 강의를 듣고 있고, 세부 전공에 있어서는 글로벌자율전공+글로벌비즈니스트랙(735), 경영학부(637), 중국학과(405)의 순을 나타내고 있다. 부경대학교에서 인문 계열 전공 강좌를 선택하는 중국 유학생들의 분포를 근거해서 볼 때, 중국 유학생들에게 가장 큰 관심 전공 분야는 비즈니스 관련 과목이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물론 중국학생들뿐만 아니라 국내외 대부분 학부생들이 선호하는 인문 계열 학부와 과목은 비즈니스 관련 전공이라는 사실을 볼 때, 이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치이다.

여기서 분석이 더 필요한 부분은 바로 그 차위 선호 전공의 의미라 할 수 있다. 부경대학에서 비즈니스 전공과 더불어 신문방송학이나 국어국문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중국 유학생들의 유학 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특히 나이가 어린 학부생들에게 한류의 영향력은 매우 커서, 이들 대부분은 중고시절 때부터 한국의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즐겨 보고, K-pop에 심취하면서 한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경우가 많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단순 관심 차원을 넘어 한국 대중문화 생산물을 적극적으로 향유하기 위해 한국어 학습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체득을 통해 한국어의 수준과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여 온 이들이기 때문에, 유학을 온 이후에도 그와 관련된 전공 선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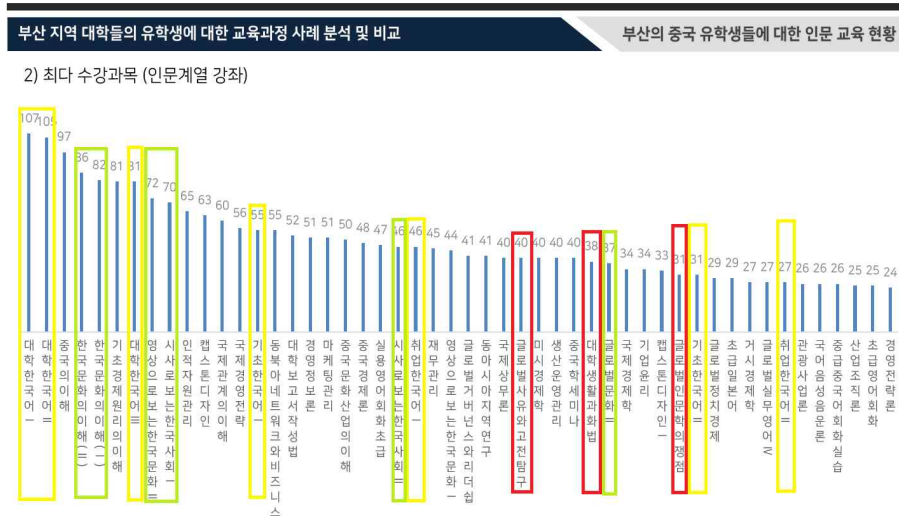
부산 지역 대학들의 유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사례 분석 및 비교

부산의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인문 교육 현황

1) 부경대학교 인문 계열 전공 강좌를 선택한 중국 유학생 분포 (2019.9.1 기준)



더욱 구체적으로 이들이 수강하고 있는 인문계열 강좌들의 선택 순위를 살펴보면, 「대학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이해」, 「시사로 보는 한국사회」 등 학교의 국제교류본부에서 진행하는 외국인 기초과목을 제외하고는 경영, 국제관계, 그리고 동북아 지역학 관련 과목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부경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중국학생들의 대부분이 「경영정보론」이나 「마케팅관리」 등 비즈니스 과목을 선호하고 있는 특징에 비해, 반면 이들이 대학 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민의 역할, 민주적 가치의 교육, 인문학적 소양 혹은 정신적 성장·건강과 관련된 교과목들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그나마 전문적인 인문학 과목으로는 「글로벌사유와 고전담구」와 같은 소수의 과목을 제외하고는 주로 실용성이나 유학생들의 자신들의 요구에 맞춰진 과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중국 유학생들은 사실 중국에서 높은 학업 성취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나 혹은 엘리트로서의 경로를 밟기 위해 한국을 선택했다기보다, 하나의 대안으로서 한국 학위와 그에 맞는 한국어 능력, 또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능력을 통해 스스로를 중국 내 동일 연령 집단에서 구분짓기²⁶⁾ 하고자 하는 의지가 큰 집단군이다.²⁷⁾ 특히 학부나 석사 과정생의 경우, 이들은 한국에서 받은 학위가 중국 혹은 한국의 취업시장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보

26) 부르디외의 구분짓기는 문화자본, 즉 소위 졸업장이나 학위증을 통해 다른 계급적 주체들과의 차별성을 만들어 낸다고 이해되지만, 정작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중국유학생들은 중국에서 한국 학위라는 문화자본만으로 구분짓기가 불가능 할 것을 예상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식들을 결합하여 자신들을 구분 지으려는 추세가 강한 집단이다.

27) “요컨대, 박사과정의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문화자본으로서 한국학위의 기대 역할에 더해 한국어 능력과 한국문화경험이 이후 펼쳐질 자신의 삶에 새로운 기회 획득의 가능성을 확장시켜줄 수 있는 ‘부가적인 수단’이 된다. 반면, 석사와 학부과정의 연구 참여자들은 문화자본으로서 한국학위가 취업시장에서의 자신의 경쟁력을 보장하거나 보다 나은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유학에 대한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정당화하는 기제이자 자신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방편으로, 오히려 문화자본으로서의 한국어 능력과 한국문화경험을 ‘주된 수단’으로 강조하며 의미를 부여한다.” 황경아·홍지아, 앞의 글, p.346.

증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한 단계에서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부가적인 지식 체계가 필요하다. 그에 따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자신들의 인생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되면서, 이 과정에서 사실 유학생들 개개인들에게는 적지 않는 심리적 불안과 동요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런 불안의 심리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에 열중하기 보다는 한국과 중국을 가교로 오가면서 일찍부터 자신들의 사업 아이템을 찾게 하거나 혹은 학업의 과정에서 이탈하게 하는 경향을 초래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추세는 유학생수의 증가와 함께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들에게 20대 초반 한국에서의 경험은 자기 진로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불안요소를 필연적으로 포함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 대학 당국은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 모두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이들의 개별적인 혹은 실질적인 정신 상태와 관련된 정혜선의 연구²⁸⁾를 살펴보면,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 영향요인을 첫째 새로운 환경에 적응²⁹⁾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³⁰⁾, 둘째 유학생이라는 학생 신분에서 오는 학업스트레스³¹⁾, 그리고 진로스트레스라고 파악할 때, 이 세 가지 요소는 복합적으로 이들 중국인 유학생들의 우울 유발요인으로 작용한다. 해당 논문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의 우울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진로스트레스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지각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³²⁾나 진로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우울 점수가 높게 나온다

28) 정혜선,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 영향요인 -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및 진로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7), 한국콘텐츠학회, 2016.07. p.66.

29) “Shaffer, L. F.(1956)는 인간의 적응을 개체의 욕구와 사회 환경 간의 상호간의 조화라고 하였고, Allport, G. W.(1961)는 인간의 적응을 환경에 대한 자발적, 창조적 행동이며 그 필수 조건으로는 인간행동의 결과가 개인에게 안정감을 주고 나아가 사회의 가치, 규범, 질서에 합치되는 상태라고 하였다. 김성경(2003)은 적응을 일반적으로 개인과 환경 사이의 활발한 상호교환을 통해 이뤄지는 과정으로, 개인이 자신의 욕구에 적합하도록 환경을 변화시키며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또한 맞춰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적응이란 개인과 환경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능동적인 행동과정이라 할 수 있다.” 윤지원·김상욱,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연구 -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중국과 중국학』, 32,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17.09. p.30 각주 재인용.

30) 유채영·이주경,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전략과 정신건강의 관계: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일상생활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8권 1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01. p.64.

31) 학업스트레스는 “정서소진, 냉소주의, 효능감 감소”의 총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될 수 있다.

32) 이예슬·김은하의 논문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따른 군집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를 보면, 주류(한국) 문화수용과 모국(중국)문화유지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또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차별감, 향수병, 적대감, 두려움, 문화적 충격, 죄책감)간에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고,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들(학업적응, 사회 적응, 대학만족도)간에도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고 본다. 특히 군집에 대한 분석을 보면, Berry가 제시한 네 가지 문화유형 중 세 가지 유형(주변화, 통합, 분리)은 나타났으나, 동화 유형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본다.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동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는 먼저, 한국과 중국이 거리적으로 멀지 않아 중국인 유학생들이 모국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한국에 사는 다른 중국인 유학생의 수가 많아 한국 사람들의 도움 없이도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정서적 지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은 집단주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 자국민들과의 교류를 중시하고, 학업을 위해 단기적으로 한국에 체류 중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보다는 한국 내의 중국인 유학생 커뮤니티에 머무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고 본다. 또 동화 유형이 나타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는 한국인의 중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기인하기도 한다고 본다. 이예슬·김은하,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따른 군집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2(3), 한국심리학회, 2015.12. pp.303-

고 설명한다. 또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 영향 요인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스트레스로 파악하면서, 그 가운데 취업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논증한다.³³⁾ 이 분석의 의미를 보면, 중국 유학생들은 유학 결정 시 이미 진로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되었으나, 한국에서 진로 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지나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³⁴⁾ 따라서 정혜성은 이들의 우울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학과만족도와 진로성숙도는 진로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보이고, 사회적 지지³⁵⁾는 취업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킨다고 파악한다.³⁶⁾ 그리고 그는 최근 중국인 유학생들의 직업의식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한국 대학에서의 교육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한다. 따라서 학과 차원에서 유학생들의 학과만족도를 상승시키고 효과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필자는 부산 유학생들의 실질적인 고민과 관리, 지지 모델의 구상³⁷⁾을 위해 부경대학교 글로벌자율전공학부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과 초보적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부경대학교 글로벌자율전공학부 글로벌비즈니스 트랙에 재학하는 학생들로 55명이 설문에 답변했다. 필자는 이들에게 유학대학 유형 선택 과정과 그 이유, 부경대학교에서의 진학 이후 언어, 문화, 교양, 전공 교육 과정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인문 교육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및 유학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물었다. 주관 답변 항목으로는 유학지로서 한국과 부산을 선택한 이유, 유학을 오기 이전과 이후의 목표 변화 여부,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한 객관 답변의 통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정리된 표를 보면, 대부분의 중국 유학생들이 국립대학을 의식적으로 선택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2/3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사립대학과의 비교 속에서 국립대학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중국인들의 한국 유학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비춰볼 때, 전적으로 학위의 가치에 좌우되는 대학이나 전공 선택보다는 한국에서의 생활상 안정성, 그리고 교육 경비의 경감, 그리고 국립대학이 주는 신뢰도가 귀국했을 때 이들의 문화자본 형성에 있어서 최선의 타협지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307쪽 참조.

33) 유채영·이주경, 앞의 글, p.64.

34) 유채영·이주경, 앞의 글, p.69.

35) 진민진·배성만·현명호의 연구 「중국인 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감, 대처양식,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대인관계적인 변인인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기존 선행연구에서 개인내적인 변인에 집중했던 것과는 다르게 사회적 지지도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모형을 만들어 검증하여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있다. 해당 논문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 사이를 부적으로 매개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의 증가와 관련된 개입을 통해 우울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진민진·배성만·현명호, 앞의 글, p.793.

36) 정혜선, 앞의 글, p.66.

37) “기본심리욕구 중에서는 자율성을 제외한 유능성과 관계성의 욕구 충족이 이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가지의 욕구 중에서는 관계성 욕구의 충족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의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다양한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여 소속감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리첸첸·오인수·이수경,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기본심리욕구 및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7권 1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6.03. p.114.

부경대학교 글로벌자율전공학부 중국 유학생 인식 기초 조사 (2019.11.)							
	질문 내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
질문 1	한국의 유학 대상 대학 선택 시 유형별 선택 기준	국립대학 (42)		사립대학 (1)		상관없음 (12)	
질문 2	부경대학교의 언어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1	2	7	33	12	
질문 3	부경대학교의 문화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0	1	15	24	15	
질문 4	부경대학교의 교양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0	0	12	33	10	
질문 5	부경대학교의 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1	1	10	25	18	
질문 6	부경대학교의 인문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0	0	15	24	16	
질문 7	유학 생활 중 느끼는 스트레스 유형	교육관련 활동 (30)		비교육 관련 문 제 (20)		기타 (5)	
질문 8	한국의 유학생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0	0	15	30	10	55

교육과정과 관련된 만족도를 분석해 보면, 우선 각종 언어 및 전공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문화와 인문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전공 기초 및 심화와 관련된 교육에 비교해 인성 및 문화 관련 교육에 있어서 부산만의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부경대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성인이 된 후의 인성 교육이 전체 교과 과정 가운데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유학 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 유형을 살펴보면, 이들의 주요한 스트레스는 교육영역과 비교육 관련 영역이 3 : 2의 비율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약 60%에 해당되는 중국 유학생들이 언어 및 자기 전공 관련 학업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동시에 학비, 문화적 부적응, 건강 등 비교육 관련 문제에서도 적지 않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주관 답변 항목을 보면, 한국과 부산에 오게 된 이유에 있어서는 'K-pop, 한국어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서울에 비해 연해도시로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기후', '고향과 같은 분위기와 중국과의 가까운 거리'를 주로 거론하며, '중국 학교와 친구의 추천, 학비나 물가 저렴하다'는 요인이 선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유학 이전과 이후의 목표에 관련해서는 주로 '취업을 한국이나 중국, 어디서든 했으며 좋겠고, 나아가 좋은 일자리를 얻거나 대학원 진학을 최선의 목표'라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 많았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학비가 싼 이유도 있지만 처음 목표에 비해 현재 재학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더욱 모르겠다는 답변도 있었는데, 이는 향후 충분한 진로 및 정신 건강 관

런 상담과 관리가 필요한 중국 유학생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진로와 취업과 관련해 자신들의 방향성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들의 위험 인자들을 가급적 조기에 제거하는 것이 유학생 관리에 있어서 핵심 사안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이들 중국 유학생들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언어와 전공 등 학업 문제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겪는 스트레스가 크며, 동시에 진로와 취직에 대한 불안이 그만큼의 비율만큼 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부경대학교에 재학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향후 교과 과정 관련 학업 및 진로 상담은 물론 개인의 심리 상담, 인성 인문 교육이 체계화되어야만 이들의 유학 만족도가 상승하고 궁극적으로 이들 유학생들의 선순환 구조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 부산의 중국 유학생에 대한 인문 교육의 필요성

한국 내 유학생 20만 명 시대를 앞두고, 본 논문은 한국, 특히 부산에 와 있는 유학생들에 대한 초보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유학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개선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보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을 찾기도 부산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대학들의 대폭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먼저, 한국 학생 자원의 급감으로 인해 맞고 있는 한국 대학의 위기는 그 교육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유학생들의 규모가 커질수록 교육 과정에 대한 불만도와 이탈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 비춰볼 때, 한국 대학들이 유학생을 재정 위기의 탈출구로만 인식하는 문제점은 빠른 시일 안에 극복되어야 할 것이며, 유학생들에게도 보편적인 고등교육의 내용과 가치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조속히 공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근본적으로, 한국 대학이 가지고 있는 외국 유학생 교육 체계와 관련하여 이들에게 개설되는 과목들이 보편성을 근거로 하는 내용을 담기보다는 지나치게 한국 문화의 개괄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은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높지 않는 수준의 한국 문화 강의가 이들에게 어학 교육과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의 문제점과 근본적으로 심화된 인문 교육의 부재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지점임에 틀림없다. 더 나아가 20세 전후의 민감한 감수성을 지닌 청년들이 자신 내면의 성숙과 미래의 설계를 준비할 수 있는, 사유와 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인문 교육 과정의 개발이 절실하다. 그리고 동시에 취업 진로와 관련된 비교과과정의 지원은 물론 유학 생활 속에서 지나칠 수 있는 정신 건강 유지와 관련된 상담과 관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의 부경대학교 유학생 현황을 사례로 분석해 볼 때,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관련 과목과 국제경영이나 국제관계, 동북아 문화 경제 등 과목의 비중이 큰 것은 유학생들의 선호와 기초 학력 구성을 위해 필수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일반 대학생 즉, 젊은 청년으로서 깊이 있는 사유와 토론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수업 내용이 부재하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또 전공 교육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앞으로의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교육 과목이 부족함은 물론,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전망이나 기초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로드맵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순차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교과 과정에 대해서 보면, 이들 중국 유학생들이 경영학이나 경제학, 기초 외국어 과목 등 취업 관련 교과목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에 비해 이들에게 제공되는 취업 및 진로와 관련된 비교과 과정이 극히 제한적으로 혹은 1회성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또 일반 한국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비해 대학 내 공간 문제나 수업 인원의 조정 문제 등 환경적 조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서, 이들 조건에 대한 개선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계열별 상황을 보면, 인문계열 전공 유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인원은 많으나 1:1 교육 상담 등의 세밀한 관리가 부족하고, 반면 이공계 전공 유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그 인원 수는 적으나 이 또한 전문적인 관리가 부족하여 전공에서의 적응도가 상당히 뒤쳐져 있다. 이처럼 부산 지역에서의 외국인 유학생 교육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개선해 나가, 이들로 하여금 정책적 배려를 통해 부산으로의 유학에 있어서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대학의 미래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금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리첸첸·오인수·이수경,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기본심리욕구 및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7권 1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6.03.
- 유병부·우양일, 「중국인 유학예비군들의 유학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한·일·미·영 4국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2권 제1호(통권 30호), 2014.01.
- 유석준·장미혜 등 공역, 『사회자본 - 이론과 쟁점』, 도서출판 그린, 서울, 2007.
- 유채영·이주경,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전략과 정신건강의 관계: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일상생활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8권 1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01.
- 윤지원·김상욱,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연구 -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중국과 중국학』, 32,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17.09.
- 이예슬·김은하,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따른 군집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2(3), 한국심리학회, 2015.12.
- 정혜선,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 영향요인 -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및 진로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7), 한국콘텐츠학회, 2016.07.
- 진민진·배성만·현명호, 「중국인 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감, 대처양식,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6(4), 한국심리학회, 2011.12.
- 胡翠月, 「关于中国留学政策对赴韩中国留学生规模变化影响的研究」,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0권 제1호(통권 22호), 2012.01.
- 황경아·홍지아, 「재한 중국 유학생의 유학동기와 문화자본으로서의 취득학위의 가치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제91집, 한국언론정보학회, 2018.10.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留学生, 人文教育, 教育体系, 社会性支持, 划分, 忧郁
	영문	Students Studying Abroad, Humanities Education, Educational System, Social Support, Discrimination, Depression
<p style="text-align: center;">Analysis of Present Condition of Humanities Education among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Busan : Centering around a case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at Pukyong National University in Busan Lee, Bo-Go / Kim, Hyun-Tae / Han, Hee-Jin / Oh, Kum-Sik</p> <p>This study conducts research to understand what selection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Busan , second largest city in Republic of Korea make and how they put their plans for their lives into practice in Busan amid faced with circumstances that qualitative level of managing foreign students is declining in Republic of Korea while the number of foreign students studying in Republic of Korea has increased. This study aims to examine problems with University education in Republic of Korea which Chinese students studying at national university located in Busan feel and actual state of humanities education starting with a question that why Chinese students select Republic of Korea as a country to study abroad and their experience of studying in Republic of Korea will become what cultural capital. Coping with crisis university education in Republic of Korea is faced with due to sharp decline in students should be started with radical reflection on its overall education system.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larger a size of foreign students studying in Republic of Korea is, the less satisfaction with curriculum provided by universities in Republic of Korea and the more foreign students drop out of college, a problem that universities in Republic of Korea only think of foreign students as emergency exit from financial crisis should be overcome within the earliest possible time and they should realize that it is natural that foreign students should be fully provided with content and value of universal higher education. Chinese students selecting Republic of Korea as a country to study is the second best choice instead of best choice of United States of America, Japan or Europe rather than they are driven by their active pursuit of goal for learning and academic clique and thus motivating foreign students to study hard and securing excellence of learning among them is naturally great responsibility of universities in Republic of Korea. This thesis placing emphasis on expansion of</p>		

universal humanities education among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Republic of Korea is based on the belief that expansion of universal humanities education among Chinese students is the first step which allows them to acquire social support that helps them overcome sense of discrimination they feel. This study aims to extract educational direction and methodology that assures excellence of universal humanities education especially related to humanities literacy and content of education they actually receive in Republic of Korea. For this, universities in Republic of Korea should endeavor to establish system that can manage distress and depression which foreign students suffer from systematically and help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Republic of Korea to have more desirable attitude towards learning through policies.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이보고 / 李保高 / Lee, Bo-Go	한희진 / 韓姬珍 / Han, Hee-Jin	
		김현태 / 金炫兌 / Kim, Hyun-Tae	오금식 / 吳錦植 / Oh, Kum-Sik	
	소 속	부경대학교 글로벌자율전공학부	부경대학교 글로벌자율전공학부	
		부경대학교 중국학부	부경대학교 글로벌자율전공학부	
	Em@il	bogopanda@pknu.ac.kr	polhan@pknu.ac.kr	
		dochkim@pknu.ac.kr	ksoh@pknu.ac.kr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9년 11월 26일	심 사 일	2019년 11월 28일
	수 정 일	2019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5일